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Market Insight
2026.3.12

Mirae Asset Research AI

본 조사분석자료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습니다. 본 자료 마지막에 안내된 중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수]
김주연
Jooyoun.kim@miraeasset.com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비축유 방출 합의에도 유가 상승..미국 증시 혼조

- 미국 증시 주요 지수 혼조 마감: 다우 -0.61%, 나스닥 +0.08%
- IEA 비축유 방출 합의에도 호르무즈 해협 둘러싼 긴장 주시, 국제유가 4%대 급등
- 2월 CPI, 전년 대비 2.4%로 안정세 유지..이란 전쟁 영향은 미반영

Summary

3월 11일(현지 시각) 미국 증시 주요 지수는 전일에 이어 이란 전쟁과 관련한 이슈를 주시하며 혼조 마감.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61% 하락한 47,417.27에 마감했고, S&P500 지수는 0.08% 하락한 6,775.80에 거래를 마침. 나스닥 지수는 0.08% 상승한 22,716.13에 마감했고, 중소형주 지수 러셀2000은 0.20% 하락한 2,542.90에 마감함.

이 날 국제 에너지 기구 IEA는 기구 역사상 최대 규모인 4억 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에 합의하였음. 트럼프 대통령도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해 일단 비축유를 조금 쓰고 다시 채워 놓을 것이라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이란 기뢰 부설함을 다 제거했다며 석유 회사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이동해야 한다고 말함. 다만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의 소행으로 확인된 화물선 피격이 이어지는 등 긴장은 여전히 가시지 않은 모습. 이에 국제유가는 4% 이상 상승, WTI는 배럴당 87.25달러, 브렌트유는 91.98달러를 기록.

미 노동부는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고 밝혀. 상승률은 직전 1월 과 같은 수준에 머물렀고 다우존스 집계 전문가 예상치에도 부합. 전달 대비로는 0.3% 상승. 근원 CPI는 전년 대비 2.5%, 전달 대비 0.2% 상승. 다만 이 날 발표된 지표는 2월 중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지표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개시 이후 급등한 국제 유가의 영향 등은 반영되지 않음. 때문에 시장은 전쟁 개전 이후 에너지 가격 급등이 물가에 미칠 영향에 보다 집중.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은 비료, 화학제품, 중간재 가격 상승 등으로도 이어질 전망.

(다우 -0.61%, 나스닥 +0.08%, S&P500 -0.08%, 러셀2000 -0.20%)

특징종목

필수소비재와 부동산이 1% 이상 하락했고 에너지는 2.48% 급등했음. 사모신용 부실 대출 문제가 계속 드러나는 가운데 사모펀드 운용사를 비롯한 금융주 전반도 약세 궤도에 머물러 있음. 전일에는 클리프워터가 운용하는 주력 사모대출 펀드의 1분기 환매 요청 규모가 펀드 전체 지분의 14%에 달했다는 소식도 있었음. KKR(-3.15%), 블랙스톤(-2.46%), 블루 아울 캐피털(-4.65%), 아레스 매니지먼트(-4.80%).
중동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해상 운송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석유, 가스 부산물인 유황 가격도 급등. 이에 비료와 화학 산업도 영향을 받게 될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중. 실제 비료 원료인 요소 가격은 이번주 톤당 700달러로 전쟁 이전보다 약 45% 급등했음. 비료업체 주가 상승. 모자이크(+10.08%), CF 인더스트리스 홀딩스(+9.16%).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한 IEA의 비축유 방출 결정 등에도 국제유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공급 차질 우려에 상승. 에너지 관련주는 이와 함께 반등. 엑슨 모빌(+2.33%), 셰브론(+2.95%), EOG 리소시스(+3.61%), 코노코필립스(+2.52%), 옥시덴털 페트롤리엄(+4.63%).

반도체주 상승세는 대체로 유지.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0.63% 추가 상승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3.86%), 인텔(+2.57%), AMD(+0.79%), 웨스턴 디지털(+0.97%), 샌디스크(+5.90%), 램 리서치(+1.69%),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1.50%) 등이 상승 주도.

한편 전일 마감 이후 기대 이상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공개한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 오라클(+9.18%)이 전일 시간외 거래에서의 상승세에 이어 급등. 장 중 15%에 육박했던 오름폭은 다만 다소 반납. 테슬라(+2.15%)는 2월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된 차량이 5만 8,600대 판매돼 1년 전에 비해 91% 증가했다고 밝힌 가운데 강세.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에너지 가격 상승을 제어하기 위한 갖가지 조치에도 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하자 미 국채 금리는 인플레 상승과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 지연에 대한 전망으로 상승함. 2년물 금리가 6.3bp 상승해 3.652%를 넘겼고, 10년물 금리는 7.4bp 상승해 4.229%를 기록. 30년물 금리도 8.8bp 상승해 4.878%를 기록. 예상치에 부합한 2월 소비자물가지수도 이란 전쟁의 여파가 반영되지 않은 과거 데이터에 불과하다는 반응 속에 채권 금리 상승(가격 하락)을 방어하지 못함. 외환시장에서 달러는 유가와 함께 강세. 장 중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구간 달러인덱스(DXY)는 99.30까지 상승하기도 했으며 전일 대비 0.43% 상승한 99.253에 마감. 상품 시장에서 국제유가는 비축유 방출 결정 등에도 상승세를 지속. WTI가 4.55% 상승해 배럴당 87.25달러에 마감했고 브렌트유도 5.87% 상승해 배럴당 91.98달러를 기록. 달러 강세와 함께 금과 은 가격은 각각 1%, 4% 하락함.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